

대구 법왕사 백고좌법회 문열어

9월 7일 전야 산사음악회... 300여 대중 참석



9월 6일 법왕사에서 열린 전야산사음악회 모습. 참가자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대구 법왕사(주지 실상)는 9월 7일 복지관 3층 대법당에서 3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제23회 경·울·론 삼장 백고좌 대법회 중 첫 법회를 봉행했다.

12월 15일까지 100일간 열리는 제23회 백고좌 대법회는 100분의 스님들이 하루도 쉬지 않고 설법을 열었던 신라시대 법회에서 시원을 찾을 수 있다. 대구 법왕사는 1995년 백고좌 법회를 복원해 매년 법회를 개최하고 있다.

‘소통과 화합으로 함께하는 불교’를 주제로 열린 이번 백고좌 법회는 경윤론 삼장 중 대승불교 주요 경전인 금강경과 화엄경, 법화경, 대승기신론을 비롯해 율장에 관한 부처님의 금구성언(金口聖言)이

도문 스님 첫 법회로 원용3제 법문 전야제서 국악마당 갈래 받아

이에 앞서 6일에는 저녁 7시부터 1, 2부로 나눠 전야산사음악회가 개최됐다. 1부 식전 행사에 이어 제2부에서는 이수찬 대구마하이주민센터 소장의 사회 하에 즐거운 놀이 한마당이 펼쳐졌다.

퓨전사물놀이, 피리독주, 경기민요, 가요 판소리 등의 국악 한마당이 진행됐으며 대구지역 국회의원인 주호영 의원의 초청 토크쇼도 진행됐다. 전야산사음악회에는 300여 불자들이 참여해 백고좌법회의 깊은 뜻을 되새겼다.

음악회에 참여한 이순심 씨(53)는 “국악이 흥겨웠다. 스님들의 명법문을 매일 들을 생각하니 떨린다”고 기대를 표했다.

법왕사 주지 실상 스님은 “백고좌법회란 나라의 평안과 백성의 고통을 구제하기 위해 100일 동안 매일 한 분씩 큰스님 100분을 모셔 설법하게 하는 법회로, 우리나라에서는 신라 진평왕 때 황룡사에 백고좌를 차리고 원광법사 등이 설법한 것이 처음”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스님은 “매년 백고좌 법회를 통해 우리 시대 선지식들의 법음이 세상에 널리 퍼지길 기원한다”며 불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제23회 백고좌법회에는 화엄사 주지 각성 스님과 전 해인사 율원장 혜능 스님, 해인승가대학 학장 해월 스님 등이 강주로 나설 예정이다. 특히 ‘남진제, 북송담’으로 일컬어지며, 현대 한국의 대표적인 선승으로 추앙받는 송담 스님도 초청됐다.

99일째인 12월 14일 해인사 율주 종진 스님이 불자에게 계를 내리는 수계법회를 집전하며, 100일차 마지막 대미는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장이며 경국사 조실인 인환 큰스님 초청법회로 장식된다. (053)766-3747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군민과 함께한 송림사 행복 나눔 음악회

칠곡 송림사(주지 혜성)는 9월 8일 송림사 대웅전 앞 특설무대에서 제3회 산사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날 산사음악회에서는 김범룡, 조항조, 정수라, 금잔디 등 인기 가수 공연을 비롯해 궁중무용, 댄스공연 등이 진행되는 ‘행복 나눔 음악회’로 꾸며졌다.

음악회에는 송림사 주지 혜성 스님과 서상기, 이완영 국회의원, 송필각 경북도의회 의장, 이우석 칠곡부군수 등 3000여 명이 참석해 초가를 밤 음악이 흐르는 산사의 정취를 만끽했다.

송림사 주지 혜성 스님은 인사말에서 “기도, 나눔, 수양의 도량을 찾아준 모든 불자들이 무거운 짐까지도 이곳 부처님 전에 내려놓고 행복만 가져가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9월 8일 송림사 특설무대에서 열린 ‘행복나눔 음악회’ 중 궁중무용의 한 장면.

이상동 송림사 신도회장은 “행복 나눔 음악회가 슬픔과 억울함도 함께 풀어가며 가슴 가득히 행복을 품고 가는 소중한 시대를 열어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송림사는 주민화합과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공유하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매년 ‘행복 나눔 음악회’를 개최하고 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각성 스님 ‘서장’ 고운사 특강

의성 고운사(주지 호성)는 9월 10-14일 각성 스님 초청 <서장> 특강을 개최했다.

<서장>은 대해 선사가 참선 공부에 관해 자세히 써 놓은 편지다.

이날 강연이 펼쳐진 선 체험관에는 고운사 말사 주지 스님들을 비롯해 200여 대중이 모였다. 각성 스님은 “마음공부의 세 가지인 참선, 염불, 관법”이라며 대중의 끊임없는 정진을 강조했다.

박영애 영주지국장

제1회 세계불교 문화올림픽 열린다

12월 5일 룸비니서 개최...태종사서 조직위 결단식

세계불교문화올림픽조직위원회(위원장 원담, 각항사 주지)는 9월 14일 부산 태종사(조실 도성)에서 제1회 세계불교문화올림픽 증명단 결단식을 봉행했다.

이날 조직위원장 원담 스님은 “12월 5일 룸비니에서 세계불교문화올림픽을 열고자 한다”며 “불교 사상 최대 축제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원담 스님은 “세계 여러 불교국가 단체들과 협의해 템플스테이 홍보관을 비롯



해, 세계불교문화 체험관, 우수용품 판매점, 연등축제 등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진 부산지사장**

캠페인

렌즈속 현장 - 도량을 도량답게 가꾸자

상생의 디자인 사찰서 부터

고색장연하다는 말은 오래되어 예스러운 풍치나 그윽한 분위기를 말할 때 쓰인다. 오래된 사찰의 경관을 설명하는데 그럴 수 없이 잘 어울리는 말이다.

법당의 퇴색한 기둥, 마당에서 모진 세월을 꿰뚫어 견뎌온 오래된 석탑, 철이 보기 좋게 벗겨져 고풍스러움을 드러낸 법당의 벽체... 이러한 것들이야말로 우리 사찰의 고색장연한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귀한 요소들이다.

현대로 오면서 우리 사찰에도 많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특히 재료의 변화는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골기와의 얽은 전통건축물이 콘크리트로 지어지고, 담장의 재료에 스테인리스 스틸과 같은 철 재료가 쓰이기 시작하고, 고

운 흙으로 마감되었던 마당이 화강석이나 벽돌로 포장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전통사찰의 경관적 정체성을 훼손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된다. 그런데, 이렇게 한국성을 잃게 되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기색은 없고 사찰의 여건에 따라 혹은 사찰에 주석하는 스님들의 안목이나 취향에 따라 불사의 틀이 쉽게 결정되고 실행된다.

공법이나 재료가 달라지는 것은 시대가 바뀌면서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하지만 전통사찰에서 면면히 계승되어온 경관적 정체성을 지키는 것은 양보할 수 없는 일이다. 만약 그러한 기본적인 전제가 손상된다면 한국성이 지켜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문화재를 보유한 사찰의 현상

을 변경할 때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득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대도시 한가운데 지어지는 사찰마저도 옛 재료를 써야하고 옛 공법을 써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많은 불자들이 수용하기 위해서는 건폐율과 용적율을 높여야하고 경제적으로 불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오래된 공법과 재료만을 고집하다보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대적 공법에 현대적 재료를 쓰더라도 드러나는 경관성은 한국성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되려면 한국성을 보여주는 요소들을 부분적으로 조화롭게 결합시켜 전체적으로는 한국적 이미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디자인이라는 것은 부분이 모여서 전체를 이루는 것이므로 이러한 방법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 볼 가치가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러한 디자인을 상생의 디자인이라고 부르고자한다. 상생의 디자인을 우리 사찰에서부터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

홍광표(동국대 조경학과 교수, 사찰조경연구소장)



전통사찰의 경관을 고려해 현대건축기법과 전통기법간의 조화를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전통사찰인 경기도 ○사찰에 도입된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든 펜스.

반야동자(12절)
3,000부 이상 @ 800 원

- 200부이상 @1,000원
- 규격 : 25.8cm × 26.5cm
- 사찰에서 선호하는 기본 사이즈입니다.

보리심(한지)
200부 이상 @ 1,500 원

- 100부 180,000원
- 규격 : 30cm × 63cm ★국판3절
- 매수 : 13장
- 전통 인견한지 달력입니다.

행복한하루(탁상)
200부 이상 @ 1,500 원

- 100부 180,000원
- 규격 : 26cm × 19cm
- 탁상용 달력중 가장 큰사이즈

선(수첩) 200부 이상 @ 650 원

- 100부 @800원
- 규격 : 9.5cm × 13.4cm
- 매수 : 18장

연꽃향기(미니)
200부 이상 @ 450 원

- 100부 @600
- 규격 : 8.9cm × 9.5cm
- 매수 : 16장

연꽃향기(미니)
200부 이상 @ 450 원

- 100부 @600
- 규격 : 8.9cm × 9.5cm
- 매수 : 16장

연꽃향기(미니)
200부 이상 @ 450 원

- 100부 @600
- 규격 : 8.9cm × 9.5cm
- 매수 : 16장

연꽃향기(미니)
200부 이상 @ 450 원

- 100부 @600
- 규격 : 8.9cm × 9.5cm
- 매수 : 16장